

캐나다 정계요인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해 중공악인을 청벌할 것을 호소하다



[밍후이왕] 근일 캐나다 국회의원들은 점차 국회 변론회에 청원을 제기해 캐나다정부가 파룬궁을 박해한 중공관원을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이런 사람을 식별하고 청벌할때 라고 했다.

파룬궁은 ‘진선인(真、善、忍)’을 창도하는 신앙이다. 지난 21년간 중국공산당(중공) 정권의 부패관리들은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을 고문하고 학살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했고, 정권 차원에서 장기이식 사업을 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했다...

“청원자들은 이름이 밝혀진 14명과 그 외 같은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자산동결 및 캐나다 입국 금지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캐나다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1년 2월 26일, 캐나다 국회의원 마란츠는 국회의원 변론회에서 발언해 이상의 내용을 진술했다.

1월 26일, 3만명 캐나다인이

서명한 청원서가 캐나다 총리 트뤼도와 국회의원에 제출돼 파룬궁수련생을 참혹하게 박해하고 엄중하게 인권을 침범한 14명 중공관원 강택민, 라간, 류경, 주영강, 보희래, 황결부 등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캐나다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실시를 촉구했다.

캐나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한 개 선거구에 25명이 똑같은 청원을 했을때는 이 구역의 의원은 의회에서 이 청원을 선독할 의무가 있다. 2020년 8월_9월간, 캐나다 파룬궁수련생은 인터넷에서 연명서명행동을 개최해 캐나다 정부에서 파룬궁박해에 참여한 중공관원을 제재할 것을 호소했다.

캐나다 각지에서 중공악인 제재 청원서는 부단히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온타리오, 퀘벡, 앨버타 주 등 여러개 당파를 초월한 연방국회의원의 주목을 받았

다. 그들은 분분히 자기선거구의 거민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니펙을 대표하는 하원의원 제임스 베잔은 국회토론회에서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들이 평화로운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제 ‘마그니츠키법’을 적용해(악인) 표적으로 삼고, 이름을 알리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런 중국 관리가 캐나다를 안전한 여행의 안식처나 투자처로 삼거나 그들의 가족을 캐나다로 데려오지 못하도록 할 때가 되었다.”

프랑수아-필립 상파뉴와 룩 올리펀트 전·현직 외무장관은 서면 답변에서 “캐나다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중국이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점

놀랍다!

여러차례 이식 전문가들의 빌딩 추락 사건

[명후이왕] 올해 2월 26일, 보름날 새벽, 가장 유명한 간장 이식 전문가, 청도대학 의료그룹 부원장 57세인 장원진(臧运金)이 자살했다. 대륙매체 “의학계”의 소식에 따르면 장원진은 빌딩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이런 사건이 여러차례 발생했는데 이미 보도된 것은: 2007년 5월 4일, 상해 제2군의대학 콤파치 이식 전문가 44세인 리보춘(李保春)은 병원 콤파치 이식빌딩 12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2010년 3월 16일, 중국 공정원 원사, 국제 유명 콤파치병 전문가, 원 남경군 구 총병원 부원장 84세인 리레이스(黎磊石)는 자택 14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2013년 10월 13일, 산둥대학 치루(齐鲁) 병원 간장이식 주임 50세인 장쉬성(姜旭生)은 자택에서 목을 베고, 배를 갈라 자살했다. 위의 의사 4명은 모두 “파룬궁박해 국제 추적조직”의 추적명단에 올랐고 파룬궁수련생 생체 장기적출에 참여하여 고소됐었다.

2010년, 내막을 아는 사람이 장기적출에 참여한 많은 의사들은 오랜시간 불면, 잠잘때 식은땀 나거나 혹은 악몽을 꾸는 등 비슷한 증상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2020년말, 미국화인 루쑤형(陆树恒)은 “국제 추적”에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로 적출한 죄행을 실명으로 고소했다. 그 중 루쑤형 형수의 언니 저우칭(周清)은 이름있는 외과 의사이고 대량의 임상 외과수술을 했지만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적출에 여러번 참여한 후 더는 할 수 없었다. 이유는 그녀가 늘 악몽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저우칭이 수술할때 생체장기적출 대상자에게 마취를 하지않았기에 (장기 품질을 보전하기 위해) 당사자는 고통스러운 나머지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는데 현장은 지극히 잔인했다.

네티즌은 이는 나쁜일을 해 악보받았다고 의논했다.

20일 사이에 8세 외손녀의 신심은 개선됐다



[명후이왕] 작년에 8세 외손녀는 20일간 우리집에서 머물렀다. 사실 외손녀를 3살 전까지 줄곧 내가 키웠는데 나는 파룬궁수련생이기에 듣고 보는 것이 있어 외손녀는 어려서부터 온가부좌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이는 여러면에서 아주 우수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났을때 아이는 많이 변했다.

역병기간 그의 부모는 출근했기에 그를 관할하는 사람이 없어 학교의 인터넷수업마저 제대로 보지 않았고, 교과서의 기초지식도 전부 장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 예전에 매일 일기를 쓰던 좋은 습관마저 버리게 됐다.

아이의 변화를 보고 나는 낙심하지 않았으며, 파룬따파(法輪大法)가 그의 상황을 개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왜냐하면 나는 파룬따파가 사람의 신심을 건강히 하는 신기한 효력을 친히 견증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와 함께 <전법륜(轉法輪)>(파룬궁수련을 지도하는 주요서적)을 읽자고 했다. 외손녀는 아주 열심히 읽었는데 한글자를 틀리게 읽어도 다시 읽었다.

8세 아이로 말하면 매우 힘든 부분이었으나 그는 견지했다. 연속 1주일간 읽은후 외손녀의 신체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 아이는 아침마다 눈꺼풀, 입술 혹은 피부가 퉁퉁 부어 물건을 보기조차 어려웠는데 법공부를 한 첫날부터

그런 현상이 사라졌다. 또 비염이 있어 밤에 잠을 잘때면 입으로 숨을 쉬어야 했다. 매일 기상후 한무더기 휴지로 코안의 이물질들을 청리해야 했다. 하지만 법공부를 한다음 가벼운 증상이 두번 정도 나타나더니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외손녀는 법공부를 하면서 덕을 지킬줄 알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대하더라도 여전히 웃으면서 타인을 대하자.” 고 했다. 그는 또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외손녀는 <선(善)>을 이렇게 썼다 “선은 한개 미덕이다. 우리에게 행복과 아름다움을 가져다 준다. …노자는 말했다: ‘물은 이익을 베풀 뿐 만물과 다투지 않는다’, 나도 물처럼 다투지 않겠다. 그리고 또 ‘작은 선이라고 행하지 않지 말고, 작은 악이라고 행해서는 안된다’ 나는 조금씩 시작해 선을 베풀어야 진정한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이의 학습능력은 제고됐다. 이 20일간 본래는 6개월 과정 수업을 거쳐서야 완성할 수 있는 상, 하집 내용을 독립으로 완성했다.

현재 외손녀는 가야금(7급) 수업, 《시경》 수업(시낭독 대회에서 은상 받음), 영문 영화 보기, 중외 명작 열독, 바둑 놀기 등등에서의 표현은 모두 우수했다. 딸은 아이의 변화를 보고나서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신기한 효력에 감탄했다.



[명후이왕] 사람이 병에 걸려 고생하는 것은 양의의 이론과 중의의 해석 외에 또 근본 원인이 있다.

1. 이가구 (李可久) 의 할머니

청나라 고서인 ‘소두봉 (小豆棚)’에는 이가구의 할머니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말을 하여 현생의 가족들에게 전생의 상황을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가구의 할머니는 전생에 천 (陳) 씨이고 진사 (進士) 였다. 산서 (山西) 성 홍동 (洪洞) 현의 현령 (縣令) 으로 있을 때 흑형으로 남을 괴롭히기 좋아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말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죽은 후 저승에서 염라대왕을 만났다. 염라대왕은 그가 다음 생에 여자로 환생하여 23년간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각종 고통으로 전생에 지은 죄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가구의 할머니가 7~8 세 때 산동에 성이 왕 씨인 관리가 그의 집을 지나갔다. 할머니가 그를 보자마자 “왕년우 (王年友), 천모 씨를 아직도 아는가?” “년우”는 전생에 그와 한해에 진사에 합격한 수험생이였다.

왕 씨는 차를 세우고 이가구의 할머니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천 씨 현령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

었다. 왕 관리는 현령이 회화에 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가구의 할머니에게 그를 위해 한 폭의 난 꽃을 그려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가구의 할머니는 손이 불구여서 붓을 잡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보응의 진실에 감탄하며 서로 눈물을 흘렸다.

몇 년 후, 이가구의 할머니는 얼굴에 곰보와 목에 흑이 생겼다. 시집간 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다 스물세 살에 혈붕 (血崩) 으로 죽었다. 이가구의 할머니는 전생에 현령으로 고문하기 좋아해 죄를 지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시 전생의 죄를 갚아야 했다. 인간은 미혹 중에 인과 응보를 보지 못하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다.

2. 청년의 마비와 소녀의 골 결핵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 (Edgar Cayce, 1877-1945) 는 미국에서 특이공능을 가진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이다. 최면 상태에서 병을 진찰할 수 있는 그는 사람이 병이 생기는 원인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한 평생, 병에 걸리게 된 사례 1 만 4306 개를 해명했는데 병에 걸린 원인이 나쁜 짓을 해서 생긴 것을 발견했다.쁜 짓을 하면 나쁜 것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런 것들은 윤회, 환생해도 피할 수도, 땔 수도 없으며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가 해명한 사례 중, 마비된 청년이 있었다. 열여섯 살 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척추 아래가 의식을 잃어 매일 휠체어를 타야 했다. 7년 넘게 재활치료를 했지만 모두 효력이 없었다. 스물세 살 때 그의 어머니는 케이시에게 병의 원인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마비가 된 청년의 두 번에 걸친 전생을 돌이켜 보았다. 처음 전생은 로마제국이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로마 병사였는데 그는 기독교인의 박해를 즐겼고, 기독교인 박해에도 가담했다. 바른 신앙을 박해하여 죄를 지었고, 다시 윤회 환생하여 현세로 이어졌다. 현세에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치료해도 그를 치유할 수 없었다. 전생에 지은 죄는 교통사고로 벌을 내려, 그가 마비된 상태에서 전생의 업을 갚도록 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 고관절 결핵으로 모진 고통을 받는 소녀가 있었다. 케이시는 그의 전생을 해독했는데 그는 로마제국 네로왕조의 귀족이었다. 네로는 기독교인을 경기장에 넣고 사자에게 물어 뜯기도록 명했다. 그 소녀는 한 젊은 여자아이가 사자에게 물리는 것을 보았을 때, 연민의 마음 없이 순교자의 고통을 기뻐하며 크게 웃었다. 그의 고관절 결핵은 그가 기독교인이 고통을 받을 때 웃어, 벌을 받은 것이다.

사람은 선량하고 동정심이 있어야 하며,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자기 주위에 불행하거나 불공평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 비록 도와줄 능력이 없더라도 동정심을 가지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하며, 남을 비웃거나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불운을 가져오게 된다.

가족이 ‘무한 폐렴’ 대 재난에서 벗어나다

[명후이왕] 타지에 사는 딸이 2020년 설전에 우리 부부에게 “시부모와 함께 자기 집에서 설을 지내자”고 연락했다. 딸의 집에서 일하던 도우미가 설 쇠러 좀 일찍 갔기 때문에 사돈댁은 손자를 봐주기 위해 미리 앞당겨 딸네 집에 와 있었고, 우리 부부는 1월 하순에 딸의 집 근처 여관에서 지내기로 했다.

가족이 무한 폐렴에 감염되다

당시 국내 언론은 “무한 폐렴은 충분히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어 전염되지 않는다”고 계속 보도했다. 사실 무한 폐렴은 이미 무한 전 지역에 퍼진 상태였지만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돈댁은 아들 집에 오기 전 친구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아들 집에 도착한 지 며칠 안 돼서 “모임을 했던 그 집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상태가 안 좋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사실 사돈댁은 전에 열이 한 번 난적 있었지만 감기로 여기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

전화를 받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되어 가족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딸은 무한 폐렴 전염을 우려해 우리에게 딸의 집에 머물지 말고 여관에 계속 머물라고 하면서, 외손자도 접촉하지 말고,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며, 하루 두 끼 식사만 집에서 하라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여관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면서 아무 일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가 여관에서 며칠 지냈을 때 정부 측은 우리를 교외 지역의 한 여관으로 이송시킨 후 집중적으로 격리했다. 호북 사람이 라면 누구나 전부 그렇게 집중 격리를 시켰다. 딸은 걱정이 되어 직접 운전해 사위와 함께 우리가 격리된 여관을 찾아왔지만 관리 의사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먼발치에서 서로 몇 마디 말만 할 수 있게 했다. 딸은 두툼한 겨울옷을 챙겨입지 않고 왔다가 교외 지역의 낮은 온도에서 추위를 맞게 되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을 했으나 3일 후 좋아졌다. 그런데 사돈댁이 또 열이 나기 시작했다. 사돈댁은 기침 하면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났고, 4일째 사돈 두분이 전염병확진 받고 함께 병원에 입원했다.

딸 부부도 이상 증상을 보이게 되자 지역사회에서는 검사하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 검사실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온수는 물론 화장실도 없었고, 실내온도는 겨우 3도에 방에는 단지 1인용 철제침대와 물통이 1개 있었을 뿐이다. 딸은 검사결과 무한 폐렴 확진자로 판정되어 입원치료자로 분류됐고, 사위와 외손자도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14일 조처가 내려졌다.

외손자가 감염되지 않은 것은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다. 나는 외손자가 출생할 때 가부좌를 하고 발정념을 했는데, 외손자는 날개 달린 작은 천사로 보였다. 외손자가 자람에 따라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를 읽으라고 가르쳤고, 잠잘 때도 ‘파룬따파하오’ 노래를 들려주었는데 노래를 세 번 부르면 곧 잠들었다. 또 대법 책을 펼쳐 외손자에게 사부님 법상을 보여 주면서 “이 분이 사부님이시다.”라고 말해주면 바로 기억했다. 외손자는 매일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수납장 위의 대법 책을 가리키며 “사부님! 사부님!” 했다. 외손자가 이번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것은 사부님께서 보호해주셨기 때문이

가족은 모두 건강을 회복했다

우리가 자가격리 되는 동안 사돈과 딸은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 받고 있었으므로, 나는 사돈 부부에게 각각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에게 “이미 삼퇴(중공조직탈퇴)했기 때문에 정신(正神)이 보살펴줄 것이며,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구자 진언’을 외우라고 알려줬다.

바깥사돈은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매일 ‘구자 진언’을 외워 입원한지 8일째 되는 날에 정상수치로 회복됐지만, 사돈댁은 대법에 대한 믿음을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14일이 지나서야 좋아졌다. 만약 사부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사돈댁은 이 관을 넘기 어려웠을 것이다. 평소 그들은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며 심지어 심장 수술을 받은 고위험군에 속해 있었다.

모두 퇴원했지만, 유독 딸만 퇴원하지 못했다. 딸은 사악한 사당문화에 심하게 독해되어 물질만능을 추구하게 되어 진상을 알려줬어도 듣지 않았다. 나는 딸에게 “대법은 말법시기에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파룬따파를 믿는다면 구원될 수 있고, 대법만이 너를 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딸은 10여 일 동안 더 입원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음성상태로 돌아오지 못했다. 나는 강한 발정념으로 딸이 구도 되지 못하게 하는 공산 사령을 제거하고, 딸이 파룬따파를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일체 후천적인 관념을 제거했다.

딸은 20일 후 집으로 돌아왔다. 비록 딸은 파룬따파를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삼퇴’하고 사당과의 관계를 끊었다. ‘삼퇴’는 평안을 주게 되었고, 결국 사부님께서 딸을 구해 주셨다.